

공간 정책, '비효율' 극복으로 전환해야

김경민 기자 elude12@knu.ac.kr
천민주 기자 cheonminju03@knu.ac.kr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일상 회복을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학교도 대면 강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학교가 학습 공간으로 복귀하게 되면서 공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재점화되고 있다. 2017년 우리학교는 SPACE21 건물을 준공해 3개 단과대학(단과대)을 이전했지만, 여전히 각 단과대와 사용자들은 공간 부족 문제를 절감하고 있다. 우리 신문은 본격적인 대면 수업 전환에 앞서 학내 공간 현황을 짚고, 그에 따른 대안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최근 학교는 ▲융합전공 ▲마이크로디그리 ▲학생설계전공 등 다양한 학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존 학사제도는 소속 학과의 수업 이수만을 전공으로 인정했다. 반면 융복합 학사제도는 타 학과의 수업 이수도 전공으로 인정해 학과 경계를 넘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학사제도의 도입으로 강의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충족할 만한 공간이 부족해 무작정 새로운 수업을 개설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교내 공간 문제 절대 공간 부족으로 단정할 수 없어

대학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서울 캠퍼스(서울캠)과 국제캠퍼스(국제캠)의 재학생 기준 교사(校舍) 확보율은 각각 122%, 113%다. 재학생 교사 확보율은 교육 공간 면적을 비교하기 위한 척도로 ▲교육시설 ▲연구시설 ▲지원시설 등을 합한 면적을 재학생 기준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양 캠퍼스 모두 교사 확보율이 110% 이상으로 객관적인 수치 상 교육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다.

그러나 구성원 대부분은 여전히 교내 공간 부족을 호소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교내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체감과 인식은 소속 계열마다 상이하다. 이론 수업 위주인 인문계열은 강의실 확충을, 실기·실습 위주인 이공계열은 강의실 확충보다 실습 공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기획조정처에서 발표한 '2021 구성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서울 캠 정경대학 학생의 32.4%는 '강

인문·사회 계열 강의 공간				
캠퍼스	단과대학	재학생 수	강의실 보유면적	1인당 강의실 면적
서울	정경대학	3,062	2,166m ²	0.71m ²
서울	경영대학	2,420	2,958m ²	1.22m ²
서울	문과대학	1,262	1,576m ²	1.24m ²
국제	외국어대학	1,536	1,144m ²	0.74m ²
국제	국제대학	670	720m ²	1.07m ²

※ 재학생 수 = 21학년도 대학알리미 기준(단위=명)

인문·사회 계열 강의 공간 현황

의실 수와 규모'를 교육시설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그러나 이과대학 학생은 13%만이 강의실 확충이 필요하다며 실험·실습실 환경을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택했다. 국제캠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인문계열인 국제대학 학생의 34.3%가 '강의실 확충'을 우선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은 반면, 이공계열인 공과대학의 경우 관련 응답은 18.9%에 불과했다.

학내 공간 문제가 계열에 따라 크게 실습·연구 공간과 학생·교육 공간 부족으로 나눠지는 가운데 우리학교도 이를 인지하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리학교는 서울캠에서 의과대학 등 노후화된 건물을 우선 대체하고, 국제캠에는 미래 과학관을 착공해 물리적으로 부족한 실습·연구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문제는 강의실 위주의 교육 공간 부족이다. 시간과 재정 한계로 물리적인 교육 공간의 확충은 어려운 상황이다. 대면 전환을 앞둔 지금 강의실 부족 문제가 다시 대두되면서 기존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교육 공간 부족 단과대별 공간 편차 커 공간 비효율성 극복해야

교육 공간 문제의 원인으로는 '단과대별 공간 불균형'이 지적된다. 특히 강의실 부족이 극심한 인문계열은 단과대별로 공간의 편차가 큰 상황이다. 전체 단과대 중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정경대학의 경우 1인

당 강의실 면적은 약 0.71m²로 나타났다. 반면 문과대학과 경영대학의 1인당 강의실 면적은 각각 1.24m², 1.22m²로, 정경대학보다 1인당 강의실 면적이 0.5m² 이상 넓었다. 강의실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경영대학의 경우 강의실 활용이 비교적 여유롭지만, 인원 대비 강의실 면적이 가장 적은 정경대학은 강의실 부족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단과대별로 상이한 보유 공간은 캠퍼스 내 공간의 여유와 부족이 공존하는 모순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잔여 공간 활용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 및 학내 구성원의 건물에 대한 반영구적 소유 인식으로 강의실 등 공간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간관리시스템 부재도 이유 중 하나다. 남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 공간을 공유하기 어려운 것이다.

때문에 교육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선 공간에 대한 공유로의 인식 전환과 공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해결책으로 꼽힌다. 우리학교는 올해 구성원들에게 공간에 관한 인식 개선을 권유하는 동시에 공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간 활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총무관리처가 구상하는 공간관리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공유가 불가능한 ▲교수연구실 ▲실험·실습실 등을 제외한 ▲강의실 ▲회의실 ▲휴게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조정한다. 최종적으로는 공간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우리학교의 목표다.

학생 공간 부족 일부의 공간 아닌 모두의 공간으로

학생 자치 공간 부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각 단과대 내 일부 공용공간을 제외하고는 학생 자치 공간은 사실상 전무하다. '학내 단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자치 공간'이라는 취지로 설립된 학생회관이 있지만 정작 학생회관의 대부분은 동아리방으로 사용된다. 동아리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학생들은 휴식 및 수업 수강 등 자치 목적을 위해 학생회관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동아리들도 이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서울캠 학생회관 동아리방의 개수는 49개로 정식 중앙 동아리 47개와 가등록 동아리 2곳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생 동아리를 비롯한 미등록 동아리들은 학생회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동아리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새로 공간을 할당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생 체육분과 동아리원 이원우(행정학 2020) 씨는 "운동 동아리의 경우 동아리 자체의 공용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아리방이 없는 동아리의 경우는 물품 보관을 한두 명이 도맡아서 진행한다"며 "이 경우 활동을 할 때 장비를 보관 중인 사람이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장비 전달이 불가하여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적인 공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정작 독점적인 점유 구조로 공간을 필요로 하는 동아리와 학생들은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셈

이다. 때문에 필요에 따라 공유공간을 점유하는 '오픈스페이스'를 학생회관 등의 학생 자치 공간에 조성해 학생 자치 공간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모두의 공간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 우리학교 창업 공간인 삼의원창업센터의 경우 공용 스튜디오, 회의실, 휴게실 등이 구축돼 구성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스튜디오 등은 학내 구성원도 절차를 거쳐 사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타 대학에서는 구성원들의 공간 사용을 위해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고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고려대의 경우 자유로운 미디어 기획 및 창작을 위한 영상 작업 공간으로서 'MCB 라운지'를 조성하고 사전 예약을 통해 고려대 재학생 누구나 대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경인교대는 학생회관에 동아리 별로 방이 배정돼 있으나 모든 학생의 사용을 위해 동아리방 관리자에게 문의해 재학생이라면 동아리방을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성원 의견 수렴 과정 수반돼야

현재 공간을 공유 중심의 오픈스페이스로 전환하더라도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필수적이다. 총동아리연합회(총동연) 강설아(경영학 2020) 회장은 "동아리방은 동아리별로 사용 목적이 상이하다"며 "각자의 소유물을 보관하고 있어 공간이 공유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 회장은 공연분과 밴드 동아리들은 동아리방에 각 밴드의 약기를 보관하고 학주 연습을 진행하는 한편 체육분과 동아리 중 검도부의 경우, 동아리방에 죽도와 각종 장비들을 보관하는 용도로 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리의 특성이 다른 만큼, 독점적인 공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아리의 특성에 따라 공유가 불가능한 공간을 제외하고 물품 보관이나 회의 공간 등 공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용 공간을 확충하는 것도 대안으로 떠오른다. 이를 통해 공간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인다는 것이다.

이원우 씨는 "기존의 동아리 방을 공용으로 사용해 물품 보관이 가능한 공유공간이 조성되면 좋겠다"며 "이런 공간이 생긴다면 동아리들이 공간 부족으로 인해 겪는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본 기사에서 인용된 재학생 수는 대학공시자료 내 수치로 작성됐습니다.